

# 공동체 라디오 동작FM의 다중참여와 실천사례 연구:

네그리와 하트, 비르노의 다중이론을 중심으로 \*

강진숙\*\*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소유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석사과정)

본 연구의 목적은 동작FM의 다중실천과 정서 변이의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공동체 라디오의 함의를 살펴보는 데 있다. 공동체 라디오에 주목한 이유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삶의 이야기와 사회 이슈들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다중실천의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 논의로서 '다중'에 대한 사유를 검토하고, 특히 다중의 네트워크 결합방식, 다중지성으로서의 실천적 행위, 이를 통한 주체 형성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작FM의 참여자들과 질적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공동체 라디오가 가지는 다중실천의 가능성과 참여자들의 정서 변이의 측면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향후 공동체 라디오를 비롯한 공동체 미디어의 다중실천 방법들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어:** 공동체 라디오, 네그리, 하트, 비르노, 다중

---

\* 이 논문은 2015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jskang1@cau.ac.kr

\*\*\* kindmania@hanmail.net

## 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2016년 5월 12일 폐국위기를 맞은 광주FM이 시민들의 주도적 참여로 재개국 방송을 시작했다. 광주FM은 2009년 정부 주도로 시작된 공동체 라디오 사업자로 선정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광주북구청, 전남대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경영상의 문제, 낮은 효율성 등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폐국을 통보하였다. 이에 지역 주민단체들은 주민 위주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광주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방송으로 새로운 공동체 라디오를 출범시켰다(박철홍, 2016, 05, 12).

일련의 사건은 현실 맥락에서 공동체 라디오의 함의와 그 한계를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공동체 라디오는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를 위해, 공동체가 운영하는 방송”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공동체란 지역적으로 구분되며, 공통의 관심을 추구하는 집단을 의미한다(Tabing, 2002, p. 9). 따라서 공동체 라디오는 지역 시민이 중심이 된 방송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광주FM의 사례처럼 국내의 공동체 라디오는 지역 시민이 아니라 국가 행정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해외의 사례와 달리 국내 공동체 라디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행정기관이 주도했다는 점에 기인한다(김은규·최성은, 2013; 한선·이오현, 2008). 이상의 상황 속에서 국가 주도적 공동체 라디오와는 달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새로운 형태의 라디오 또한 존재한다. 2015년 2월을 기준으로 서울시에는 72개의 미디어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중 12개가 팟캐스트 방송을 실시한다(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2015). 주파수 할당과정, 이사회 구성 등 국가 중심의 공동체 라디오에서 벗어나 팟캐스트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라디오가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라디오 방송은 10와트 이하의 주파수를 활용하는 소출력 라디오라는 현행법상의 정의에 부합하지는 않으나,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된 라디오 방송이라는 점에서 본질적 의미로서 공동체 라디오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팟캐스트 공동체 라디오를 통한 다중의 형성 사례와 실천 가능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공동체 라디오의 함의를 탐색하기 위해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와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 그리고 파올로 비르노(Paolo Virno)의 ‘다중’(multitude) 이론을 바탕으로 이론적 논의들을 개진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다중이론을 연구의 바탕으로 설정한 이유는 참여자들의 행위와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사유의 단초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다중이론을 바탕으로 팟캐스트 공동체 라디오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어떠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공통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정서의 변이를 통해 결과물을 생산하는지를 분석하며, 마지막

으로 공통의 네트워크가 다중의 실천 가능성을 내포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향후 공동체 라디오를 비롯한 공동체 미디어의 다중실천과 참여방법들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2. 이론적 배경

### 1) 다중실천에 대한 사유

다중이라는 새로운 주체성에 대한 사유는 네그리와 하트의 공저 3부작인 〈제국〉, 〈다중〉, 〈공통체〉를 통해 촉발되었다. 이 저술들에서 제기되는 다중 이론은 지배 권력에 대한 비판에 근거해 다중의 주체성과 공통의 네트워크 실천 원리와 사례들을 탐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 근거로서 유의미하다.

네그리와 하트는 현 세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재적 추상, 역사적 경향, 적대라는 마르크스의 사유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한다. 우선 실재적 추상이란 현실의 구체적 부분에서 본질적 원리들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다시 현실의 구체적 부분을 분석하는 과정을 뜻한다(강영계, 2008). 네그리와 하트는 마르크스의 방법론을 현시대에 적용하여 “생산의 시작과 끝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도 나타나는 공통적인 것”을 읽어낸다(Negri & Hardt, 2001/2008, 188쪽). 두 번째로, 시간의 개념에 실재적 추상을 적용했을 때 각각의 시기에 존재하는 ‘공통의 형식들’을 읽어낼 수 있다(Negri & Hardt). 네그리와 하트가 근대에서 탈근대로 이행되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 삶 자체를 생산하는 비물질적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세 번째로, 네그리와 하트는 마르크스의 적대 개념을 통해서 ‘빈곤’이라는 개념을 도출한다. 즉,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생산하는 정동과 사건 등의 비물질적 노동에 대한 착취는 “공통된 것의 강탈”(Negri & Hardt, 191쪽)로서 빈곤 다중을 재생산한다. 마지막으로, 네그리와 하트는 마르크스의 ‘적대’에 기반을 둔 계급적 주체인식과 사회구조의 이행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체구성의 방법으로서 다중을 제기한다. 이것은 적대의 제거가 아니라 다양한 차이를 상호존중하고 특정 사안과 작업들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다중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네그리와 하트는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집합적 지성을 구성하는 존재로서 다중을 제시한다(Negri & Hardt, 2001/2008, 128쪽). 네그리와 하트는 마르크스의 적대 계급론을 넘어설 뿐 아니라 푸코의 주체성에 대한 사유를 발전시켜 다중의 주체

성에 접근한다. 푸코의 주체성은 초월적 주체성이 아니라 제도로 굳어지는 다양한 지식의 양태들, 분할과 분류의 실천, 훈육 기술과 통제 기술이 형성하는 보다 구체적 영역이다. 여기서 나아가 네그리는 일상의 삶 정치를 통해 권력에 대항하는 존재로서 다중의 위상을 자리매김한다. 즉, 초월적인 것, 위로부터 아래로 향하는 삶 권력의 관점을 전도시켜 아래로부터 위로 표출되는 삶 능력에 기초한 주체성 형성과 대항 전략을 꾀하는 것이다(Negri, 2003/2011, 186-189쪽).

이처럼 네그리와 하트의 다중 이론은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를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주체성 형성의 전략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네그리와 하트의 다중이론은 논쟁의 여지를 내포한다. 우선, 다중의 기반인 비물질적 노동의 개념적 모호성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네그리와 하트는 공통적인 것을 물질적 세계 안에서 공통적 부로 간주하며 언어, 지식, 정보, 정동 등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산물까지 포함시킨다(Negri & Hardt, 2011/2014). 문제는 네그리와 하트가 비물질적 노동을 정의함에 있어 '생산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물질적 노동도 잉여가치를 생산하며, 실제 물질로 환원될 수 있기에 이를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장시복, 2009). 이는 비물질적 노동에 기반을 둔 다중이 과연 제국의 지배질서에서 중심 세력일 수 있는지, 나아가 제국적 지배질서에 균열을 낼 가능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야기한다(Rustin, 2003/2007).

이상의 논쟁과 관련해 비르노는 다중이라는 새로운 주체성의 존재양식에 대하여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사유를 바탕으로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한다. 비르노(Virno, 2001/2004)에 따르면, 아렌트는 인간 존재의 유형을 세 가지 측면, 즉 노동, 정치 행위, 지성 등으로 구분하고, 정치 행위가 노동을 모방하여 국가, 정당, 역사 등을 '제작'(fabrication)한다고 주장한다(Arendt, 1961/1996). 반면 비르노는 정치가 노동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노동이 정치의 함의들을 획득함으로써 인간 존재의 세 유형에 대한 경계가 붕괴되었다고 진단한다. 즉, 새로운 생산양식의 시대에서 노동은 특정 작품을 생산하기보다 공적으로 조직된 공간과 타인을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해 '타인의 눈에 노출됨'을 원하기에 정치적인 것이다(Virno, 2001/2004, 92쪽). 이러한 노동과 정치의 결합은 노동과 지성의 통일로 나아간다. 노동의 과정에서 점차 언어를 통한 비물질적 소통의 중요성이 부상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지성은 "자본주의적 생산 내부에 포함"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행위가 되었기 때문이다(Virno, 108쪽). 따라서 노동, 정치, 지성의 경계혼란 속에서 현대적 다중의 근본 토대는 공적 지성, 언어 등의 '공통의 장소'에 위치하며 공통된 것의 '공공성'이 중요하게 제기된다.

실상 네그리와 하트, 그리고 비르노의 다중개념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네그리와 하트(Negri & Hardt, 2001/2008, 18쪽)는 다중을 “모든 차이들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표현될 수 있는 개방적이고 확장적 네트워크”로 간주하며 비르노 역시 “지속적, 사회적, 정치적 실존 형태로서 민중의 강제적 통일과 대립된 것으로서의 다수성”이며, “개별자들의 연결망”으로 정의한다(Virno, 2001/2004, 127쪽). 그러나 다중의 위상을 간주하는 데는 차이점을 보인다. 네그리와 하트에 따르면, 생산적 노동의 존재론으로서 다중은 해방과 자유화의 역사적 전진을 옹호하는 힘의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역능의 존재이다. 즉, 네그리와 하트는 다중이 구성적 역능을 가진 주체로서 지배 권력에 존재론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간주한다(서관모, 2009). 반면 비르노는 다중을 보다 양가적으로 살펴본다. 다중의 근본적 토대인 ‘일반 지성’이 자본주의적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하는 상황에서, 일반 지성의 공공성은 국가, 사적 기업에 포획되어 행정장치의 비대화와 임금노동 속에서 ‘명령하는 자’와 ‘수행하는 자’ 사이의 연속관계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Virno). 결국 네그리와 하트, 비르노는 공히 다중이라는 새로운 주체의 등장을 조망하고 있지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에서 약동하는 다중의 실천 가능성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 2) 현실 맥락에서의 다중실천 가능성

앞서 살펴보았듯이 다중이론은 노동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다중의 등장과 주체성 형성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현실적 맥락과 관련하여 다중이론을 심층적으로 사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네그리와 하트가 전 지구적 체제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제기한 ‘불만의 목록’ 검토하고 한국적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네그리와 하트는 대의적 구조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네그리와 하트는 IMF와 세계은행과 같은 전 지구적 체제가 국가들에게 불균형한 권력을 제공한다고 비판한다(Negri & Hardt, 2001/2008). 전 지구적 체제는 재정적 기여도에 기초한 투표권, 상임이사국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대의적 구조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적 의사결정 체제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은 권력에서 배제된다. 이는 제국의 세 가지 명령장치 중 하나인 관리적(inclusive) 계기로 간주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대의적 구조 속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의 잠재성은 사라지며 차이의 배제 속에서 발생하는 보편적 법칙성은 제국의 확립 및 정당화를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Negri & Hardt, 2000/2001). 이와 같은 대의제의 모순은 한국 사회에서 ‘51 대 49’라는 의사결정

의 전략으로 표면화되어 나타난다. 이 전략은 과반수를 통해 획득된 통치의 정당성이 소수의견과 저항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이끈다(김정환, 2014).

다른 한편, 네그리와 하트는 경제적 측면에서 사유화 경향을 진단한다.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국영 기업과 산업의 사유화가 확산됨에 따라 삶의 영역들마저도 개인소유가 되고 배타적이 될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Negri & Hardt, 2001/2008, 335-336쪽). 예컨대, 신자유주의적 질서가 개인의 일상적 체제에 침투할 경우 일상의 교육 시스템과 인적 자원 관리 및 고용 시스템은 사회적 차원이 아닌 개별 기업의 독점적 권한이 될 수 있다. 제국의 명령 장치인 ‘관리적(managerial) 계기’에서 알 수 있듯이, 제국은 차이를 긍정하는 한편 그것들을 유효한 명령 장치 속에 배열하고 관리한다(Negri & Hardt, 2000/2001).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체계는 1997년 IMF와 국제금융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사회에 확산되었다(윤상우, 2013).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경제구조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주체성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박소진(2009)과 서동진(2009)은 경제 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자기 계발하는 주체’가 등장했다고 간주한다. 이는 신자유주의에서 생존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상품으로 계발하는 주체, 또 다른 한편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공적 존재로 만들어가는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를 의미한다. 즉, 신자유주의적 경쟁과 성공 신화는 삶의 목적과 생존의 방식까지도 관리한다.

그렇다면 현실적 맥락 속에서 구체적 다중의 실천 전략은 무엇인가? 이에 관해 비르노는 ‘탈주’(exodus)를 제시한다. 비르노는 일반 지성의 공공성이 국가 행정 권력으로 양도되는 것을 차단하고, 자본주의적 기업의 원천으로 착취되는 것에 대한 대항 전략으로서 불복종을 제시한다(Virno, 2001/2004). 즉 비르노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의 동의 혹은 저항이라는 이분법적 선택지가 아니라, 불복종이라는 제 3의 탈주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다중에게 탈주라는 선택권이 행사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네그리와 하트는 보다 구체적 실천 전략을 제시한다. 이는 “전 지구적 시민권”, “사회적 임금권”, 그리고 생산수단의 “재전유할 권리”의 정식화이다(Negri & Hardt, 2000/2001, 502-513쪽). 전 지구적 시민권을 통한 평등의 보편화, 사회적 임금권을 통한 차이의 위계에 대한 저항, 나아가 생산수단의 재전유를 통한 지식, 정보, 소통, 정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통제의 권리를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르노의 다중에 대한 양가적 관점을 전제로 하되, 네그리와 하트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다중의 실천 전략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비르노의 관점이 다중이론에 대한 보다 풍부한 함의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시사점을 주지만, 실천 전략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또한, 동작FM의 사례는 국가 정책에 대한 불복종 행위나 사기업에 대한 저

항의 측면보다는 정보, 소통, 정서 등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등의 재전유 가능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3)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선행연구

주지했듯이 본 연구는 동작FM의 네트워크 구성과 다중실천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보다 풍부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공동체 라디오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동체 라디오는 “공동체에 대한 내용(about community), 공동체를 위해서(for community), 공동체에 의해(by community), 공동체의 내부에서(in community)” 운영되는 방송을 의미한다(Sharma, 2011, p. 7). 이러한 공동체 라디오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공동체 라디오는 미디어의 다양성을 추구한다. 공동체 라디오는 장애인, 청소년, 성적 소수자 등 주류 미디어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 둘째, 공동체 라디오는 지역성을 실현한다. 공동체 라디오는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으며, 주류미디어에서 다루지 않는 지역민의 의견, 소식, 정보 등을 다룬다. 셋째, 공동체 라디오는 미디어 교육적 성격을 가진다. 공동체 라디오는 생산과 유통에서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공동체 라디오는 기술적 능력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주체적 발언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김은규·최성은, 2013).

공동체 라디오가 가진 함의와 가능성을 살펴보는 국내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진행됐다. 우선, 법제도적 측면에서 선행 연구들은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진입규제에 대한 문제(최성은, 2011), 내용규제에 대한 논의(김은규·최성은, 2013), 그리고 재정적 지원에 관한 문제(이만제, 2007)에 주목하였다. 즉, 이러한 관점의 연구들은 주과수를 국가가 규제 관리하고, 문화전문 분야로 내용을 한정하며,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동체 라디오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상업적 성격을 띠게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두 번째는 공동체 라디오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로서, 이 연구들은 참여자들의 실천과 참여에 주목하였다. 홍숙영(2015)은 공동체 라디오 관악FM에서 제작된 ‘굿모닝 세상의 이즘마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분석했다. 해당 연구는 한국인과 이주여성들이 협력하여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공동체 라디오가 다문화를 극복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강진숙과 이은비(2013)는 창신동 라디오 ‘덤’을 대상으로 여성노동자들의 참여와 실천을 분석했다. 두 연구자들은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서 여성노동자들이 사회와 소통하고 공동의 유희성을 창출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또한 정의철(2014)은 이주노동자 방송인 MWTV에서 진행되는 라디오 제작교육을 살펴 보면서, 공동체 미디어가 이주민들의 미디어 이용능력을 함양시키고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사료된다. 첫째로, 법제도적 차원에서 선행연구들은, 공동체 라디오를 방송법 제2조 3항 마에 의거하여 “공중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 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 11항(허가·승인·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간주하고 있다. 문제는 서울시에만 한정하여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12개의 공동체 라디오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2014). 즉, 현실적 맥락에서 공동체 라디오는 지역주민이나 관련 단체와 같이, 미시적인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기반의 공동체 라디오를 살펴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둘째로, 참여와 실천의 관점에서의 사례연구들은, 공동체 라디오의 함의를 살펴 보았으나, 참여주체 간의 상호작용적 측면을 간과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내포한다. 선행연구들은 공동체 라디오 참여행위의 함의를 다양한 층위에서 분석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과정은 간과한 측면이 존재한다. 즉, 공동체 라디오를 구성하는 관리자, 참여DJ들, 나아가 청취자들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 속에서 생산되는 결과물이 가진 함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상의 관점에서 본 연구는 팟캐스트에 기반을 둔 공동체 라디오를 분석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중이론과 다중의 실천 가능성에 대한 논의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팟캐스트에 기반을 둔 공동체 라디오의 구성 원리를 살펴보고, 나아가 그 함의와 한계점은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 3.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 1) 연구 문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 문제 1: 연구 참여자들은 공동체 라디오에 어떠한 방식과 역할을 통해 참여하고 있는가?

여기서는 동작FM이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참여자들의 네트워크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다중형성 방식과 역할을 분석한다.

- 연구 문제 2: 연구 참여자들은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어떻게 공통의 생산물을 만들어내는가?

앞의 논의에 이어서 참여자들이 어떠한 공통의 생산물, 즉 다중지성을 만들어내는지 분석한다. 특히 구성원들의 다양한 차이가 어떠한 방식으로 특이성을 잃지 않고 공통의 다중지성을 형성하는지 주목한다.

- 연구 문제 3: 연구 참여자들은 공동체 라디오의 다중실천을 통해 어떻게 생산물을 재전유하고 있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앞의 두 가지 연구 문제를 토대로 공동체 라디오가 어떠한 다중실천으로 이어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생산물을 재전유하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분석한다. 특히 비물질적 생산물이, 생산물의 재전유라는 실천적 행위로 이어지는지 탐색한다.

#### 2) 연구 방법

##### (1) 사례선정 방법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주도로 운영되는 공동체 라디오의 함의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동작FM에 주목하였다. 그 이유는, 동작FM이 십대여성 지원 센터인 카페 '나무', 마을 환경 운동 '꿈틀이 텃밭 가꾸기' 등 기존 지역 공동체 참

여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미디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또한, 동작FM은 대학생, 청소년, 주부 등 다양한 계층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기에 실천 행위에서 다양한 특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동작FM의 프로그램 중에서 ‘하이파이브 1040’과 ‘훈수터’(훈남들의 수다 놀이터)를 구체적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하이파이브 1040’은 중년 여성DJ를 중심으로 매회 청소년 게스트를 초청하여 학업, 연애, 취미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청소년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장으로서 기능한다. 또한 ‘훈수터’의 경우, 술자리, 스펙, 직업선택 등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본 연구가 이상의 프로그램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주요 참여자들이 청소년과 대학생이라는 특정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공동체 라디오의 다중실천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상, 참여자들의 특이성이 비교적 명확한 프로그램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공동체 라디오의 제작 구조, 인터넷 댓글 등의 물적 토대를 살펴보고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경험 자료를 수집하여 공동체 라디오의 참여 사례를 분석하였다. 심층인터뷰는 연구 참여자와의 대화를 통해 특정 사안에 대한 인식과 경험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례 분석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유용하다(강진숙, 2016).

인터뷰 진행에 앞서 2015년 11월 5일 청소년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식사하며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했다. 또한 ‘하이파이브 1040’에 방청객으로 능동적 참여관찰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제작, 편집 과정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1차 인터뷰는 2015년 11월 5일부터 14일까지 진행했고, 2차 인터뷰는 12월 11일, 2016년 1월 14일, 23일에 실시했다.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	성별	나이	역할	직업	프로그램	미디어 교육 참여경험(주)
A	남	33	교수자	국창	-	-
B	여	48	DJ	주부	하이파이브 1040	10주
C	여	47	DJ	주부	하이파이브 1040	10주
D	남	18	게스트, 청취자	고등학생	하이파이브 1040	없음
E	남	28	DJ	대학생	훈수터	3주
F	남	26	DJ	대학생	훈수터	3주
G	남	33	청취자	직장인	훈수터	없음

추가 인터뷰는 2016년 3월 2일과 4일, 7월 26일, 28일에 걸쳐 실시했다. 총 17일에 걸친 인터뷰는 노량진에 위치한 동작FM 사무실 근방 카페에서 실시했고, 약 60여 분 동안 반개방형 질문에 연구 참여자가 자유롭게 대답하는 방식을 취했다. 인터뷰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녹취 후 분석 자료로 활용했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 4. 연구 결과

##### 1) 공동체 라디오의 네트워크 결합방식

본 연구는 동작FM의 다중형성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참여자들의 결합방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 동작FM의 형성과정을 살펴본 결과, 동작FM은 수평적 네트워크로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작FM은 동작구에서 진보정당, 마을환경 운동가, 청소년 지원단체 등에서 활동하던 지역 시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거예요.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던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작FM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토의를 통해 제가 국장으로 선출되었죠. 경제적 문제는 지역 시민들이 십시일반 도와서 방송장비, 공간, 스튜디오를 마련했어요. 지금도 후원자들을 통해서 운영되고요. (연구 참여자 A, 남, 33세, 동작FM 국장)

인터뷰 결과 동작FM은 개별 지역 주민단체에서 활동하던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중요한 지점은 동작FM의 설립이 국가기관이나 기업의 개입 없이 마을 주민들의 협동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있다. 또한 동작FM의 설립주체가 지역주민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설립주체들이 공유하는 동작구라는 장소성은 비르노가 제시한 다중의 근본적 토대인 일반 지성을 구성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다(Virno, 2001/2004). 이러한 동작FM의 다중실천 가능성은 방송 프로그램의 변화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초창기 방송 프로그램은 지역의 정치적 현안이 중심이었어요. 초기의 참여자들이 행정기관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낭만과 전설의 동작구예요.

점차 참여자들이 늘어나면서 동작구에 살고 있는 일반 주민들의 흥미, 관심사 등을 주제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죠. (연구 참여자 A, 남, 33세, 동작FM 국장)

연구 참여자의 진술처럼, 동작FM은 정치적 현안이라는 공통의 관심사에서 지역주민의 일상적 생활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동작FM의 모습은 네그리와 하트가 제시한 차이가 자유롭게 표현되는 개방적이고 확장적 네트워크로 간주될 수 있다(Negri & Hardt, 2001/2008). 본 연구는 이상의 구성 원리에서 나아가, 동작FM의 참여자들이 어떠한 네트워크로 결합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동작FM의 참여자들은 <그림 1>과 같이 국장, DJ, 청취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주목한 요인은 라디오를 직접 제작하는 DJ들 간의 결합방식이었다. DJ 간의 결합방식에 주목한 이유는, 다양한 관심사와 특이성을 가지는 DJ들이 하나의 공통된 것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루시 선생님과 저(티나)의 경우, 처음에 관심사가 정말 많이 달랐어요. 루시 선생님은 동작구의 버스가 아저씨들을 대상으로, 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고 싶었어요. (연구 참여자 B, 여, 48세, 1040 하이파이브 DJ)

관심사가 너무 달라서 주제 선정에 애를 먹었지만, 결국 둘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루시)나 티나 선생님 모두 동작구에 살고 있지만,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송을 했죠. (연구 참여자 C, 여, 47세, 1040 하이파이브 D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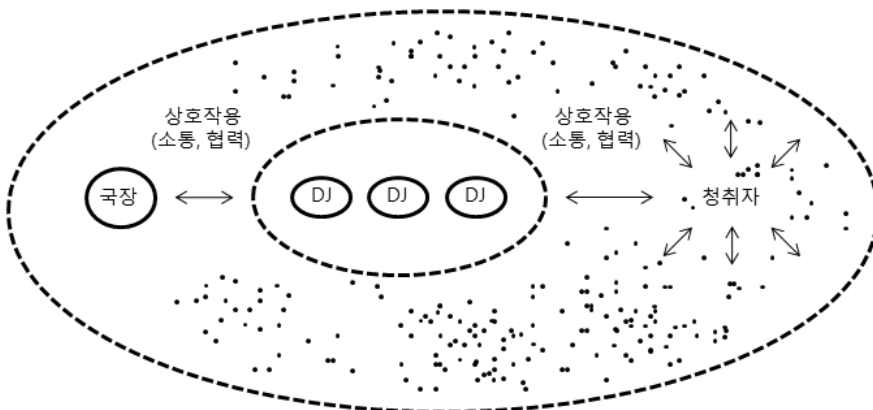


그림 1. 동작FM 네트워크의 결합 요소

인터뷰 결과 ‘1040 하이파이브’의 경우 주제 선정에 DJ 간의 차이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었다. 흥미로운 부분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의 공통적 주제를 선정했다는 점에 있다. ‘1040 하이파이브’의 DJ들은 버스기사, 청소년이라는 상이한 관심사 속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소외된 청소년의 이야기라는 주제를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다. ‘훈수터’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훈수터’에서 육아예능에 대한 주제로 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육아예능에 대한 생각들이 DJ마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어린이 순수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한 반면에, 다른 DJ는 어린이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를 강조했죠. (연구 참여자 E, 남, 28세, 훈수터 DJ)

재미있는 점은 저희들이 치고 박고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의 합의점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아예능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육아예능을 보는 시청자들이 다소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합의점이 도출된 거죠. (연구 참여자 F, 남, 26세, 훈수터 DJ)

이상의 인터뷰 결과 ‘훈수터’ DJ들 간에도 수평적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참여자 E는 육아예능에 대한 DJ들의 의견이 차이가 있었음을 피력했고, 이것은 찬성 혹은 반대와 같이 특정한 DJ의 의견으로 차이가 통합되기보다 갈등을 드러낸 사례다. 흥미로운 것은 연구 참여자 F의 말처럼 ‘치고 박고 싸우는’ 과정을 통해 공통된 것이 생산되었다는 점이다. 제국은 ‘미분적(differential) 계기’들을 작동시켜 문화적 관점에서 차이를 관리하고 비갈등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한다(Negri & Hardt, 2001/2008). 그러나 ‘훈수터’ DJ들의 경우 차이를 찬양하기보다 갑론을박하는 논쟁 과정을 통해 시청자의 ‘육아예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즉 하나의 입장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갈등 과정과 비판적 태도들을 열어 놓고 있다는 점에서 ‘훈수터’ DJ들 간의 수평적 소통의 참여 방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처럼 ‘1040 하이파이브’와 ‘훈수터’의 DJ들은 “모든 차이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표현될 수 있는 개방적이고 확장적 네트워크”로 결합되는 모습을 보였다(Negri & Hardt, 2001/2008, 18쪽). 그러나 단순히 DJ 간의 결합방식으로 공동체 라디오의 네트워크를 살펴보는 것은 한계를 가진다. 그 이유는 공동체 라디오의 구성원 중에 국장이라는 참여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장이라는 참여자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는 과정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편집 과정에서도 기술적 우위를 차지한다. 또한 공동체 라디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교육도 담당하기에, 차이를 위계적으로 배치, 관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교육 과정의 대부분은, 주제와 세부적 코너를 선정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국장님은 같은 DJ로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청소년, 루시 선생님은 버스기사 아저씨, 국장님은 노랑진 고시생들을 주제로 삼자고 주장했죠. 8주간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합의점을 찾는 과정을 거쳤어요. (연구 참여자 B, 여, 48세, 1040 하이파이브 DJ)

국장님이 편집을 해주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시지 않고, 저희와 회의를 해서 편집을 진행하세요. 저희가 기술이 모자라서 편집을 하지는 못하니깐 이를 보완해주시는 동료인거죠. (연구 참여자 C, 여, 47세, 1040 하이파이브 DJ)

처음에 대학생들의 연애를 중심으로 코너를 계획했어요. 반면 국장님은 학업과 관련된 코너를 제시했구요. 그런데 결국, 둘 다 대학생의 일상과 관련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슬생즐생’이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패션, 공장 등 일상의 소재를 다뤘어요. (연구 참여자 F, 남, 26세, 혼수터 DJ)

인터뷰 결과, ‘1040 하이파이브’와 ‘혼수터’의 경우 수평적 네트워크로 결합되어 있다고 분석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B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국장은 교육 과정 속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통적인 것을 생산하는 구성원으로 기능한다. 또한 국장은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위계적으로 차이를 관리하는 모습이 아니라, DJ들과의 회의를 통해 세부적 편집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국장은 DJ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통적인 것을 생산하는 참여자로 기능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특정한 방송 내용에 있어서 국장과 DJ 간에 다소 위계적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직업소개 코너를 진행할 때, 국장님이 조금 개입하기는 했어요. 게스트와 대화를 나눌 때, 연봉이나 회사의 혜택 이런 것을 언급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죠. 그런데 저희는 직업을 소개할 때 대학생들에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이게 좀 불편하셨나 봐요. (연구 참여자 F, 남, 26세, 혼수터 DJ)

방송 내용에 대해 간섭을 하지는 않아요. 다만 공동체 라디오의 취지와 맞지 않을 때는 조언을 하죠.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행복한 방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순한 자기자랑이나 과시 같은 내용은 빼달라고 요청하죠. (연구 참여자 A, 남, 33세, 동작FM 국장)

인터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국장은 방송 내용과 관련하여 DJ들과 위계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방송을 제작하는 데 공동체 라디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그러한 과정이 공동체 전체의 의사가 아니라, 국장의 독단적 판단에 의해서 이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현재 동작FM에는 DJ와 국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친목도모와 외부행사 이외에 방송 제작과 관련된 공통의 기준은 부재한 모습을 보인다. 즉, 동작FM은 방송제작 과정에서는 공통된 것을 생산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과정에 있어서는 서로 합의에 이르는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위계적 소통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상의 문제는 전문적인 활동가 교육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현재 서울마을미디어 지원센터는 미디어 활동가 교육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기획자, 운영자, 강사 등 보다 전문적 측면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문화사회연구소, 2014). 따라서 공동체 라디오를 운영하는 데 방송제작 능력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전반적 과정에 대한 교육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DJ들과 국장을 중심으로 동작 FM 구성원들의 차이가 결합되는 방식을 살펴해보았다. 그러나 DJ와 국장이라는 구성원 외에 청취자와의 관계 또한 중요하다. DJ와 국장이 자신들의 입장 차이만 인정하고, 청취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수직적 소통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DJ와 청취자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저희는 댓글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러한 댓글은 작게는 음악 선정에서부터, 크게는 주제나 분위기 선정에도 영향을 미치죠. 아직도 ‘프롤르’라는 청취자가 기억나요. 저희 방송에 다양한 댓글을 남겨줬지요. (연구 참여자 E, 남, 28세, 훈수터 DJ)

3명의 여대생이 방송했던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문제는 저희가 여자DJ들과 썸 타는 방송을 자주 진행했다는 거예요. 사실 사심이 좀 있기도 했죠. 그런데 반대하는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저희가 잘못된 거죠. 모두가 만드는 방송인데, 저희들이 사적으로 이용한 부분도 있으니까. (연구 참여자 F, 남, 26세, 훈수터 DJ)

‘훈수터’는 ‘1040 하이파이브’와는 달리, 댓글을 통해서 청취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인다. 연구 참여자 E의 말처럼 ‘훈수터’의 청취자는 댓글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동작FM의 305개의 댓글 중 167개는 ‘훈수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주로 주제에 대한 청취자의 생각, 신청곡, 아이디어 제시 등의 형태를 띤다. 또한 연구 참여자 F의 말처럼 ‘훈수터’ DJ들은 이러한 댓글을 반영하여 ‘다른 여자DJ들과 썸 타는 방송’ 내용을 수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DJ와 청취자가 수평

적 네트워크를 형성함을 보여준다. 다만, 흥미로운 것은 ‘훈수터’ 역시 DJ들의 독단에 의해 수평적 소통관계가 깨질 위험이 도사린다는 점이다. 반면 ‘1040 하이파이브’의 경우, 댓글이 아닌 카톡방을 통해서 청취자와 소통한다.

저희 라디오의 청취자들은 일일 DJ나 게스트로 참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반대로 게스트로 참여했다가 청취자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카톡방을 통해서 청취자와 소통하는 것 같아요. 원래 이 카톡방은 게스트로 참여한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 학생들이 라디오의 주요 청취자가 된 거죠. (연구 참여자 B, 여, 48세, 1040 하이파이브 DJ)

인터뷰 결과 ‘1040 하이파이브’의 청취자들은 직접적 방송참여를 통하여 DJ들과 지속적인 소통관계를 형성함을 알 수 있었다. 즉, ‘훈수터’와는 달리 ‘1040 하이파이브’의 청취자는 방송참여의 경험을 바탕으로 DJ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그러나 문제는 연구 참여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카톡방은 방송참여 경험이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일반 청취자들을 배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1040 하이파이브’의 네트워크는 “타자들을 밀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경계를 강화”하는 제국주의적 네트워크로 기능할 위험성이 존재한다(Negri & Hardt, 2000/2001, 267쪽).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청취자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청취자들은 동작FM을 구성하는 핵심적 참여집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행하기 때문이다.

예전에 남자 친구의 폭력문제로 라디오에 출연한 여자 아이가 있었어요. 그때 ‘나무’에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남친을 바꿔라, 헤어지기 싫으면 남친 성격을 바꿔라, 이런 이야기들이요. 근데 결국 답은 하나죠. 어떤 잘못을 했어도, 여자아이가 맞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연구 참여자 D, 남, 18세, 게스트, 청취자)

‘동작풍뎨’이라는 사람이 대학생들의 방송을 스펙 쌓는 방송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었어요. 이걸 기점으로 청취자들 간에 동작FM이 스펙을 위한 방송이 되어야 하는지 아닌지 다양한 토론이 있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대학생들도 지역 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대학생 또한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신의 관심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연구 참여자 G, 남, 33세, 훈수터 청취자)

인터뷰 결과 ‘1040 하이파이브’의 청취자들은 카페 ‘나무’를 중심으로 결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취자들은 폭력을 주제로 그 해결책에 있어서 상이한 차이를 보인다. 그



러나 이러한 차이는 결국 사람은 폭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통적 생각을 도출해낸다. ‘훈수터’ 청취자의 경우에는 DJ들의 스펙과 관련하여 토론을 했다. 이는 공통적인 것을 대학생 DJ들이 사적으로 소유하는 가에 대한 문제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상이한 관점 속에서 대학생들도 지역 사회의 일원이며, 자신의 관심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이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1040 하이파이브’와 ‘훈수터’의 청취자들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상이한 차이를 바탕으로 공통된 것을 생성하는 수평적 네트워크로 결합되어 있다.

요컨대, ‘1040 하이파이브’와 ‘훈수터’의 네트워크 구조는 전반적으로 수평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우선 DJ들은 서로 간의 수평적 소통을 통해서 공통된 관심사를 도출했고, 청취자의 댓글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장 역시 주제 선정과 편집 과정에서 참여자로서 수평적 구조로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훈수터’의 사례처럼 방송을 구성하는 데 국장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1040 하이파이브’의 경우처럼, 방송참여 경험을 기준으로 청취자를 배제할 위험성도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두 네트워크 모두 다중으로서 주체성 형성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그 구조 속에서 수평적 네트워크가 무너질 위험도 내포하고 있었다.

## 2) 공동체 라디오의 비물질적 생산물

주지했듯이 공동체 라디오의 구성원들은 공통된 것을 바탕으로 공통된 것을 생산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공동체 라디오에 의해 생산되는 것은 무엇인가? 본 장에서는 공동체 라디오가 생산하는 것을 콘텐츠의 측면과 언어, 관행, 행동, 정서 변이와 같은 삶 형태의 측면으로 나눠 살펴본다. 먼저 2014년 12월 9일에 첫 방송을 시작한 ‘1040 하이파이브’는 청소년들의 고민을 나누는 ‘틴틴팡팡’이라는 코너를 진행한다. ‘틴틴팡팡’에서 다룬 소재는 총 56개이며 <표 2>와 같은 유형을 보인다.

흥미로운 부분은 약 절반에 해당하는 소재가 가정상황을 다룬다는 점이었다. 또한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가정폭력, 결손가정, 부모님의 질병 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사실 가정의 문제가 주된 문제죠. 아이들의 흡연, 게임 중독 등의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불안정한 가정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 저희들은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아요. 물론 법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아봐서 조언 해주기도 하지만요. (연구 참여자 B, 여, 48세, 1040 하이파이브 DJ)

표 2. '틴틴팡팡'의 소재 유형

유형	구체적 내용	건수
취미	동아리 홍보, 노래, 악기연주 등	5
미래	취업, 대학선택, 군대입대 등	6
학교생활	교우관계, 방학, 시험, 성적, 매점 등	8
연애	사춘기 성 고민, 연애, 남친의 폭력, 성교육 등	8
학교 외 생활	게임 중독, 흡연, 질병 등	5
가정/가족상황	결손가정, 이혼, 부모님 질병, 가정폭력 등	21
20대 멘토	자원봉사, 전공 선택 등	3

출처: 팟빵 동작FM 홈페이지 (2015, 11, 13). URL: <http://www.podbbang.com/ch/6160>에서 재구성. 원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저희들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아이들의 입장에 맞는 방안을 찾는 거지요. 가출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한 아이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생님을 소개시켜 줬지요. 지금 그 아이는 선생님과 같이 살고 있어요. (연구 참여자 C 여, 47세, 1040 하이파이브 DJ)

인터뷰 결과 '1040 하이파이브'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다양체로서 서로 소통과 협력하며, 구체적 결과물을 이끌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요한 부분은 이 과정에서 성인 DJ들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는 성인 DJ들이 가지는 차이와 청소년들의 차이가 위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 서로의 차이를 유지한 채로 공통의 지식을 형성함을 보여준다. 반면 2014년 2월 25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39회 진행된 '훈수터'의 경우 회당 1~2개의 소재 유형으로 방송을 진행했다. 구체적 소재 유형은 <표 3>과 같다.

흥미로운 부분은 '슬생즐생'과 '직업탐험 신비의 세계'였다. '슬생즐생'의 경우 대학생들의 흐름 속에서 대학생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직업탐험 신비의 세계'는 현재 직장에 다니는 게스트를 섭외해서 특이한 직업을 소개하고, 직업선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였다.

'슬생즐생'은 신입생들을 위한 내용으로 방송을 구성했어요. 입학하면 공간 시간에 뭘 해야 할지, 자기한테 집적대는 복학생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경험한 지식들, 정보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다른 청취자분들도 이런 주제와 관련한 의견들을 많이 올려 주셨고요. (연구 참여자 E, 남, 28세, 훈수터 DJ)

'직업탐험 신비의 세계'는 대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는 취업을 주제로 삼았어요. 다만 이렇게 하면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방송을 하지는 않았어요. 특이한 직

표 3. '훈수터'의 소재유형

유형	구체적 내용	건수
캔윽뽀마핳뵁	이별, CC, 복학생과 신입생의 연애, 새내기 연애 등	10
슬생즐생	패션, 공간, 조별과제, 중간고사, 선후배 관계 등	17
훈수쿨	전화 상담	2
비타민 씨네마	팁플, 씸 등의 갈등상황을 연극으로 재현	11
직업탐험 신비의 세계	스포츠 기자, 모바일 프로그래머, 동작FM PD 경험 등	5

출처: 팟뽁 동작FM 홈페이지 (2015, 11, 13). URL: <http://www.podbbang.com/ch/6160>에서 재구성. 원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삶을 들여보고,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과 그 고유한 가치가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저희가 배우고 싶기도 했고요. (연구 참여자 F, 남, 26세, 훈수터 DJ)

'훈수터' 역시 공통된 네트워크 안에서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목할 부분은 '직업탐험 신비의 세계'의 경우에 차이를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즉, 해당 코너는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직업에 주목함으로써 직업의 위계적 배열에 균열을 일으키고, 직업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처럼 '1040 하이파이브'와 '훈수터'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중지성의 가능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통된 네트워크에서 형성된 정보와 지식이 신자유주의적 경향에 저항할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훈수터'의 경우 특이성을 가지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함으로써 차이의 위계적 배열에 저항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정보와 지식에 한정지어서 공동체 라디오를 살펴보는 것은 한계를 지닌다. 네그리와 하트가 강조한 것처럼 공통적인 것은 지식이나 정보뿐만 아니라 공통적 관행들, 언어들, 행동들과 같은 인간의 삶 형태도 생산하기 때문이다(Negri & Hardt, 2001/2008, 265쪽).

참여관찰 결과 흥미로운 것은 DJ들이 특정한 호칭을 가졌다는 것이었다. '1040 하이파이브' DJ들은 '티나', '루시'라는 이름으로, '훈수터'는 '불주' 등의 호칭으로 불린다.

제가 '훈수터'에서 맡은 역할이 수다거든요. 그래서 불타는 주둥아리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물론 저희들끼리 방송에서 '주둥아리 또 불탄다' 이런 말을 했지만, 이것을 듣고 청취자들이 불주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더 입을 털게 되는 것도 있죠. (연구 참여자 E, 남, 28세, 훈수터 DJ)

인터뷰 결과 라디오 DJ들은 청취자와의 네트워크 속에서 호칭을 얻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호칭을 정하는 게 아니라, 소통 속에서 자연스럽게 호칭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이 점은 프로그램 제목에서도 알 수 있었다.

‘흑석동 베짖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3회 정도 진행했는데요. 청취자들이 제목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DJ들은 놀고먹는 베짖이, 의미 없는 일에 청춘을 탕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격려의 댓글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즐겁게 이야기 한다는 콘셉트는 살려서 ‘훈수터’라는 이름으로 변경했죠. (연구 참여자 E, 남, 28세, 훈수터 DJ)

이처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 자신들만의 고유한 이름, 호칭을 생산하는 다중지성의 모습을 보인다. 호칭은 누군가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작동할 위험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호칭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고려했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만들어낸 호칭이라는 점에서 다중지성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참여자의 다양한 특이성을 존중하고 이를 새롭게 창조한다는 점에서 공동체 라디오 속의 호칭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1040 하이파이브’와 ‘훈수터’는 특정한 관행들도 생산한다. 먼저 ‘1040 하이파이브’의 경우에는 특정한 주제의 질문들을 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저희가 일반적이고 평범하게 사용하는 집밥이라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저희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혼자 사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화할 때, 아이들이 먼저 말하기 전까지 이런 부분은 대화하지 않는 거죠. (연구 참여자 C 여, 47세, 1040 하이파이브 DJ)

그런데 쿡다스는 나중에 뭔가 웃기려고 할 때 사용되었어요. 이미 저희와 청취자들은 쿡다스 가슴이 무엇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엉뚱한 맥락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면 웃기는 거죠. ‘오늘 기분이 쿡다스 같네요’처럼요. 그러니까 쿡다스라는 말을 사용하니까 ‘우리 웃어요’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연구 참여자 F, 남, 26세, 훈수터 DJ)

인터뷰 결과 ‘1040 하이파이브’는 집밥, 부모님과 같은 용어들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연구 참여자 B가 언급한 것처럼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 이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서로 소통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1040 하이파이브’가 형성하는 관행은 청소년들의 특이성을 존중하는 기제로서 작동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훈수터’는 특정한 단어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생성된 단어들을 반

복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쿨크다스라는 언어적 표현물은, 지속적으로 반복됨에 따라서 그 맥락을 벗어나서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 즉,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공통적 관행으로써 기능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1040 하이파이브’와 ‘훈수터’의 네트워크 결합방식과 다중지성으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를 확장시켜 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네그리와 하트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생성되는 정서적 측면도 고려하기 때문이다.

저는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데, 학교에서 부모님을 모셔오라는 말을 들었어요. 힘 들고 우울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처음 ‘1040 하이파이브’에 출연했고, DJ분들이 제 이야기, 노래를 듣고 정말 잘한다고 칭찬해줄 때, 응원의 글들이 올라올 때 힘이 되었죠. 극복할 수 있다는 힘을 얻어요. (연구 참여자 D, 남, 18세, 게스트, 청취자)

제가 통영사투리에 말도 더듬고 목소리도 하이톤이거든요. 저 스스로 이런 부분에 콤플렉스가 많았어요. 표준어, 또박또박한 말, 남자는 저음이라는 사회적 통념에서 전 최악이죠. 그런데 댓글을 보고 힘이 많이 났어요. 제 목소리가 높아서 잘 들리고 사투리가 개성이 있어서 좋다는 댓글이요. 그때부터 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생겼어요. (연구 참여자 F, 남, 26세, 훈수터 DJ)

이상의 인터뷰 결과 공동체 라디오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부정적 정서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경험을 했다. 흥미로운 부분은 이러한 정서의 변이 속에서 참여자들이 자기 스스로가 가진 힘을 긍정한다는 점이었다. 즉, 공동체 라디오를 통한 정서의 변이는 참여자들에게 자신 존재의 능력을 자각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러면, 이러한 정동의 과정이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청취자에게도 일어나고 있는가? 이에 ‘1040 하이파이브’ 카톡방의 메시지들과, ‘훈수터’에 달린 댓글을 살펴봄으로써 청취자의 측면에서 정동의 측면을 살펴보았다. 먼저 ‘1040 하이파이브’의 2015년 4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의 카톡 내용을 살펴본 결과, 청취자들은 ‘오늘 우울했는데 힘이 나요’(7월 5일), ‘아 진짜 웃기네ㅋㅋ’(8월 7일) 등과 같이 라디오를 청취한 후 변화된 자신의 정서를 카톡방을 통해서 표현했다. 이상의 모습은 2014년 3월 20일부터 2015년 1월 26일까지 달린 167개의 ‘훈수터’ 관련 댓글에서도 나타났다. ‘머라머라 블라블라 다 필요 없이 즐거웠어요’(9월 25일), ‘정신없이 바쁜데 ‘훈수터’ 방송을 듣고 있노라면 웃음도 절로 나고 하루가 더욱 산뜻해지는 기분이예요’(10월 7일)와 같이 청취자의 정서를 표현하는 댓글이 존재했다. 이상의 메시지들을 살펴보았을 때, DJ나 게스트뿐만 아니라 청취자 역시

기쁨으로 정동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상의 인터뷰 결과 ‘1040 하이파이브’와 ‘훈수터’는 공통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식, 정보, 언어적 표현물, 정서 변이 등 삶의 형식들을 생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공동체 라디오의 모습은 네그리와 하트의 다중지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네그리와 하트는 “구성원들이 동일해질 필요가 없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자신들의 창의성을 내던질 필요도 없는 … 다양체의 소통과 협력에서 발생하는 집합적 지성”으로서 다중지성을 제시한다(Negri & Hardt, 2001/2008, 128쪽). ‘1040 하이파이브’와 ‘훈수터’는 프로그램의 제목, DJ의 호칭, 특정 단어의 제한과 반복을 형성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물이 수평적 상호관계에 기초한다는 점이다. 즉, DJ가 일방향적으로 제목이나 호칭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청취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제목과 호칭이 결정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한 단어의 제한이나 반복 역시 자기만족이 아닌 청취자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다중지성의 단초를 확인할 수 있었다.

### 3) 공동체 라디오의 다중실천 가능성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1040 하이파이브’와 ‘훈수터’의 네트워크 결합방식과 다중지성으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를 확장시켜 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핵심적 주제는 공동체 라디오가 차이를 포획하고 관리하는 현 세계의 지배질서에 균열을 일으킬 실천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고 웃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갑자기, 아이들이 제 아들이나 딸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진심으로 이 아이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게 됐죠. (연구 참여자 B, 여, 48세, 1040 하이파이브 DJ)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동작구에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정말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이것이 하루 이틀 쌓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01번 버스를 운전하시는 아저씨는 오늘 어떤 삶을 보냈을까? 이런 관심들이요. (연구 참여자 E, 남, 28세, 훈수터 DJ)

인터뷰 결과 참여자들의 정동적 체험은 ‘남 일이 아니라는 생각’,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

십'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공동체 라디오 참여자들은 공동체 속의 '나',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에 관심을 가지는 '나'라는 새로운 주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처럼 기쁨으로의 정동은 새로운 자신의 삶, 주체성을 창조한다. "정동 노동의 네트워크들에서 창조되어지는 것은 삶의 형식이다"라는 네그리의 말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위로부터 규정된 주체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체성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인다(Negri, Deleuze, Virno, Lazzarato, & Hardt, 1999/2005, 153쪽).

그러면 공동체에 기반을 둔 주체성은 어떠한 실천적 행위로 이어지는가? 앞에서 제시했듯이 다중의 주체성이 어떠한 실천적 행위의 양태로 나타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중이 지배질서에 대항하고,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희는 국회의원 선거 때 특집방송을 만들어요. 그런데 기존 미디어들은 주류 정당 소속 입후보자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해요. 그러면 일상에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입후보자들은 미디어에 나온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중심에서 벗어난 입후보자들을 중심으로 방송을 제작해요. (연구 참여자 A, 남, 33세, 동작FM 국장)

방송을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 특히 대학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서 청소노동자들은 철저하게 주변부의 사람으로 간주되죠. 실제 강의실에서, 화장실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실제 목소리를 듣지 못하니깐요.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상영회를 열고, 관객들과 토론회도 개최했어요. (연구 참여자 E, 남, 28세, 혼수터 DJ)

인터뷰 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새로운 주체성은 기존 생산수단의 재전유를 통하여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연구 참여자 A와 E가 언급한 '일상', '우리의 삶'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 미디어는 일종의 지배질서로서 특정한 차이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를 다시 '일상'적인 것으로 구성하는 기제로서 작동한다. 차이의 관리는 특정한 정보를 중심으로 방송을 제작하고, 주변인물에 대한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러한 지배질서에 공동체 라디오 참여자들은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생산수단의 재전유를 통하여 저항하는 모습을 보인다. 같은 공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목소리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일상'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저항의 방식이 지배질서의 권력 획득이 아니라 새로운 '공통의 것'을 실험하고 창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공동체 라디오 참여자들은 기존 생산수단의 재전유를 통해 '관리적 계기'에 저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재전유의 가능성은 동작 TV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최근에 동작TV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숭실대학교에서 동작구 공동체 상영회에 참여했지요. 세월호 다큐인 〈나쁜 나라〉를 상영했는데, 저희는 감독과 유가족들의 대화를 영상으로 촬영했어요. 저는 이게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영상을 상영함으로써 내 주변에 있지만 관심에서 배제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연구 참여자 A, 남, 33세, 동작FM 국장)

이상의 인터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공동체 라디오는 중앙집권적 생산관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정보, 지식, 정서의 접근성을 담보했다는 점에서 네그리와 하트가 제시한 재전유의 실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인터뷰만으로 공동체 라디오의 재전유 전략이 다중실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낙관할 수만은 없다.

‘1040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청소년들이 행복한 동작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이것을 어떤 아이디어, 형식으로 만들어야 할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카페 ‘나무’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여성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마련해주고 있어요. (연구 참여자 B, 여, 48세, 1040 하이파이브 DJ)

‘훈수터’를 하면서 다음에는 지역의 정치적 사건들을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더라고요. 일단 시사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구요. 혼자서 취재할 수는 없으니까 공기관에서 자료를 받아야 할 텐데, 그럼 그냥 공기관을 홍보해줄 뿐이잖아요. (연구 참여자 E, 남, 28세, 훈수터 DJ)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정보와 지식에 대한 새로운 재전유의 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미디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공동체 라디오의 다중은 기본적인 수준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청취자와 소통할 기술적 역량은 지니고 있지만, 독자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역량의 개발과 교육과정은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공동체 라디오가 가지는 한계는 심층적 교육 시스템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내용은 네그리와 하트의 다중이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들을 환기 시킨다. 즉, 과연 차이가 인정되는 수평적 네트워크가 구성되었을 때 다중의 존재론적 역능이 발현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다만 비판적 관점들이 주로 다중의 존재론적 역능이 어떠한 방식으로 실천 가능한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공동체 라디오의 경우에는 다중의 실천 가능성의 문제 보다는 수평적 네트워크 속에서 어떻게 다중의 역능이 실현되고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다중의 실천적 행위의 양태들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네트워크 안에서 존재론적 능력이 함양되는지를 보다 비판적으로 사유하고 검증해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 5. 나가며

본 연구는 동작FM의 네트워크 구성방식과 집단지성으로서의 생산물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다중의 실천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동작FM의 참여자들과의 질적 심층인터뷰를 실시했고, 댓글 등의 구체적 실천행위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 문제 1’을 통해 동작FM의 설립과정을 살펴본 결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동작FM이 설립되었다는 점, 나아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양한 차이들이 존재하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동작FM은 수평적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고 간주할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의 연결 방식을 분석한 결과, 동작FM 참여자들은 상이한 차이 속에서 공통적 주제와 코너를 구상하고 청취자들 역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며, 제작자들은 청취자들의 의견을 프로그램 제작에 반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동작FM 참여자들의 차이는 수평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는 다중의 물질적 토대가 된다.

둘째, ‘연구 문제 2’를 통해 동작FM의 네트워크 속에서 생산되는 공통적 생산물을 분석한 결과, 동작FM의 참여자들은 청소년들의 가정환경, 학교생활에 대한 고민, 대학생의 취업문제 등과 관련하여 집단적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지식과 정보는 서로의 차이를 바탕으로 한 협동과 소통의 과정 속에서 생산되었다. 특히 지식과 정보를 넘어 고유한 호칭이나 관행, 정서의 변이 등을 생산하는 동작FM은 단순한 차이의 유지가 아니라, 창의적으로 삶의 새로운 형태를 생성하는 다중지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동작FM은 다양한 실천 주체들이 모인 공동체로서, 다중들의 차이가 유지되면서 주체들의 새로운 삶을 창조한다는 점에서 다중지성의 가능성을 가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 문제 3’을 통해 동작FM의 다중실천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동작FM의 참여자들은 공동체에 기반을 둔 주체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다중의 주체성은 기존 미디어 생산 관계의 재전유라는 실천적 행위 방식을 통해서 기존 질서에 균열을 일으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동작FM의 참여자들은 특정한 ‘일상’을 형성하는 지배질서의 관리에 저항하여 ‘일상’적 삶에서 배제된 자들에 대한 지식,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과 소통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작FM의 다중실천 가능성은 심층적 미디어

어 교육의 부재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즉, 네그리와 하트가 기대한 것과는 달리 수평적 네트워크가 존재론적 능력을 함양하기 보다는, 동작FM 참여자들은 능력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었다. 따라서 다중이 어떠한 방식으로 실천 가능한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평적 네트워크가 존재론적 능력을 함양하는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수평적 네트워크 속에서 다중지성을 형성하고, 재전유를 통한 다중의 실천 가능성을 가진 미디어로서 공동체 라디오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면, 우선 공동체 라디오가 단일지역을 넘어 연대하는 모습을 살펴보지 못했다. 이 연구는 공동체 라디오의 내부적 실천에 주목하였기 때문에 공동체 라디오가 지역주민 단체나, 다른 사회 운동과 결합되고 확장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서 미시적 관점뿐만 아니라 거시적 관점도 총괄하여 공동체 라디오를 살펴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또한 이 연구는 청취자의 실천적 참여와 정서 체험을 카톡 메시지와 댓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언어적 표현물로 한정해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분석의 명확성을 위해서 언어적 표현물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분석하였으나 비언어적 표현물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한다면, 청취자의 정서 체험의 측면에서 보다 심층적 함의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동체 라디오, 정부기관, 학계가 서로 협동하여 공동체 라디오가 가지는 함의를 분석하고, 공동체 라디오가 정착될 수 있는 환경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강영계 (2008).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 철학의 끌림>. 서울: 멘토press.
- 강진숙 (2016).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교육 연구의 주사위: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지금.
- 강진숙·이은비 (2013). 공동체 라디오 DJ의 미메시스적 실천과 유희성 연구: 창신동 라디오방 송국 <덤>을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25권 2호, 37-66.
- 김은규·최성은 (2013). 영국 공동체 라디오 정책 고찰을 통한 국내 정책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30권, 113-158.
- 김정한 (2014). 한국사회의 대중과 새로운 정치주체의 형성. <황해문화>, 85호, 86-100.
- 문화사회연구소 (2014).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서울: 문화사회연구소.
- 박소진 (2009). 자기관리와 가족경영 시대의 불안한 삶. <경제와사회>, 84호, 12-39.
- 박철홍 (2016, 05, 12). 폐국 위기 광주시민방송, 관 주도에서 벗어나 마을미디어 '부활'. <연합뉴스>. URL: <http://me2.do/5j3iueXf>.
- 서관모 (2009). 네그리와 하트의 다중의 기획에 대한 비판. <마르크스주의 연구>, 6권 4호, 126-162.

- 서동진 (2009). 자유의의지, 자기계발의의지. <경제와사회>, 87호, 292-299.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2014). <2013 마을미디어활성화 사업 결과자료집>. 서울: 마을미디어지원센터.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2015). <서울마을미디어가이드북 떠나자! 서울마을미디어여행>. 서울: 서울마을미디어 지원센터.
- 윤상우 (2013). IMF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내부화 과정. <아세아연구>, 56권 3호, 364-395.
- 이만제 (2007). <공동체 라디오방송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공동체 라디오 방송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1-32.
- 장시복 (2009). '다중'은 대안세계화운동의 희망인가?: 하트와 네그리의 '다중'을 중심으로. <마르크스주의연구>, 6권 2호, 205-237.
- 정의철 (2014). 이주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역량강화: 이주민 미디어와 이주민 미디어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9권 2호, 257-286.
- 최성은 (2011). <한국공동체 라디오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82-83.
- 팟빵 동작FM 홈페이지 (2015, 11, 13). URL: <http://www.podbbang.com/ch/6160>
- 한 선 · 이오현 (2008). 공동체 라디오와 자기효능감: 미국 공동체 라디오 KOPN에 대한 민속지학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52권 5호, 275-294.
- 홍숙영 (2015). 공동체 라디오를 통한 다문화 인식개선과 스토리설계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권 5호, 98-107.

Arendt, H. (1961). *Condition de l'homme moderne*. 이진우 · 태정호 (역) (1996). <인간의 조건>. 서울: 한길사.

Negri, A. (2003). *Reflections on empire*. 정남영 · 박서현 (역) (2011). <다중과 제국>. 서울: 갈무리.

Negri, A., & Hardt, M. (2000). *Empire*. 윤수중 (역) (2001). <제국>. 서울: 이학사.

Negri, A., & Hardt, M. (2001). *Multitude: War and democracy un in the age of empire*. 조정환 · 정남영 · 서창현 (역) (2008). <다중: 제국이 지배하는 시대의 전쟁과 민주주의>. 서울: 세종서적.

Negri, A., & Hardt, M. (2011). *Commonwealth*. 정남영 · 윤영광 (역) (2014). <공통체>. 서울: 사월의책.

Negri, A., Deleuze, G., Virno, P., Lazzarato, M., & Hardt, M. (1999). *Immaterial labor & multitude*. 서창현 · 김상운 (역) (2005). <비물질노동과 다중>. 서울: 갈무리.

Rustin, M. (2003). Empire: A postmodern theory of revolution. In G. Balakrishnan (Ed.), *Debating empire*. New York: Verso. 김정환 · 안중철 (역) (2007). <제국이라는 이름의 유령: 하트와 네그리의 제국론 비판>. 서울: 이매진.

Sharma, A. (2011). *Community radio for rural development: Information communication tool*. Saarbrücken: LAP LAMBERT Academic Publishing.

Tabing, L. (2002). *How to do community radio*. New Delhi: UNESCO.

Virno, P. (2001). *Grammatica della moltitudine*. 김상운 (역) (2004). <다중>. 서울: 갈무리.

최초 투고일 2016년 6월 10일  
 게재 확정일 2016년 9월 23일  
 논문 수정일 2016년 10월 6일

# A Case Study on Multitude Practice of Dongjak FM: Focus on the Multitude Theory by Negri, Hardt and Virno

Jinsuk Kang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Youseok So

Master student,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multitude practice and affectus for finding meaning of community radio. The reason of the focus on community radio is that was operated by citizen, not state institutions and company. So community radio has potential of multitude practice. Futhermore, Community radio is worthy of social value. Because it can be vehicle of share about local residents's life story and local issue. In order to examine community radio, this study draws on the theory of multitude by Negri, Hardt, and Virno. Specially, this study focus on the way of network formation, the action of collective intelligence, and possibility of subject forming. Founded on this discussions, this study to draw possibility of multitude practice and emotional variation from in-depth interviews which were conducted with activists in community radio. This study has meaning to provide the basic data to finding the methods of multitude practice and participation, not only community radio but also community media research.

Keywords: community radio, Negri, Hardt, Virno, multitude